

22-07,8,9 2022 년 10 월 10 일 밴쿠버 김은중이유진선교사 편지

1. 선교현장에서 전한 말씀 나눔(깊은 옥에 가두고)

"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튼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행 16:24-25)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주했다가 원주민들과 좋은 관계성 속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고 마침내 추수하게 됨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린 것이 시초가 되어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농경사회도 아닌데 이 예배를 계속드려야 하는가? 라는 진보적인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실 꼭 추수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신자는 감사가 빠지면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되고 감사는 신앙의 감기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메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좋은 장치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유럽의 첫 성 빌리보에서 귀신들려 점을 치며 살아가는 한 여인을 치료해 줌으로 인해 그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왜 그밤에 찬양을 했을까? 이에 대해 깊은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는 두가지 점에서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입니다. 비참하게 살아가는 귀신들린 여인을 온전히 고쳐 주었다면 칭찬받을 일이지 고소하고 매를 때리며 감옥에 보낼일은 아니었습니다. 두번째는 아시아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하여 순종하여 왔던 이곳에서 억울하고 힘든일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은 정당하신가? 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밤에 찬양한 이유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본인들의 당한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했고 두번째는 25 절에 깊은 옥에 갇혀 있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들으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것이며 그들을 이곳에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 맘에 하나님 중심 영혼 중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중심에 내 삶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2. 7 월 -9 월 사역을 돌아보며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3 개월이 지났습니다. 캠퍼스와 교회와 핑퐁사역을 재밌게 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저희 부부는 단지 기쁨으로 교제하고 만나고 사역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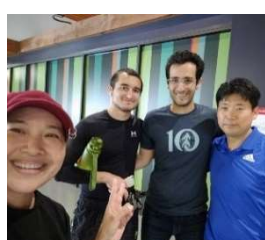
바로 아랫줄에 있는 핑퐁 패밀리와 캠퍼스 사진속에 인물들을 중심으로 계속하여 심방하고 교회 권고하고 성경공부권면하고 있으니 보시고 계속 기도부탁드립니다.

새롭게 나온 사람들 핑퐁사역 쉽야드 예배 사진을 중심으로 사진을 보내 드립니다.

sheepyard 핑퐁 패밀리 사진과 두번째 줄의 캠퍼스 지체 사진속 영혼들 위해 기도부탁합니다.



7-8 월에 새롭게 나온 사람들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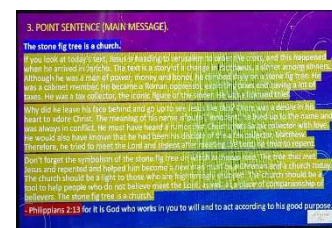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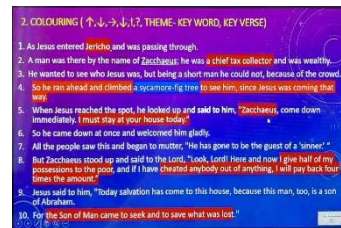


7-8 월 핑퐁 사역과 교제





7-8 월주안에 행복한 교회 예배와 교제 사진



9 월달 사역과 사진들



기타 사역과 삶



3. 10 월 사역을 준비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 1) 주안에 행복한 교회가 10 월 2 일에 정식으로 오픈 예배를 28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렸습니다. 이 소식은 10 월 소식에 올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예배가 잘 드려 질 수 있도록 기도 해 주세요





-매달 마달 1500 불 정도의 교회 재정이 (교제와 랜트비)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급하게 앰프와 마이크, 보먼대 ,키보드, 빔프로젝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11 시 줌예배와 4 시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대면예배가 잘 이루어지도록

-화요일에 교회 성경공부만을 만들려고 기도중입니다.

2) 캠퍼스 그룹 성경공부 반이 만들어 지도록 기도 바랍니다. 8 명 정도를 놓고 기도중입니다. 워낙 바쁜 생활가운데 있는 학생들이지만 생명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에 4 시에 성경공부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현재 5 명정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3) Shipyard 핑퐁 미니스트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과연 계속 이사역을 해도 되나 중간중간 저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이번 오픈예배에 28 명이 참석하고 드디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보고 좀더 진중하고 좀더 깊이 있는 말씀을 준비해서 계속하여 탁구를 통해 전도하고 이들이 예배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도록 기도바랍니다.

4) 온 가족이 성령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들 형준이가 밴쿠버에 돌아와 함께 지내면서 교회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요한이 한나도 바쁜 학업과 직장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선교사 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충만한 삶이 되어지길 위해 기도바랍니다.

5) 후원 교회와 동역자님들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어려운 경제 생활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잘 섬길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밴쿠버에서 김은중 이유진 선교사 드립니다.